

종합·해설

朴, 非여권인사 영입 올인...대구 방문 文, 5·18, 노대통령 묘지 잇따라 참배 安, 이희호 여사 예방...親野 끌어안기

■ 대선후보 추석연휴 활동 및 향후 구상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3인방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간 다양한 세대·지역·계층이 모여 형성된 추석 민심이 향후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선대위원장과 국민통합위원장 등 외부인사 영입에 올인 하고 있다. 후보의 진정성과 체신 의지를 부각시킬 만한 인물 영입이 대선전의 중요한 승부수로 보고 이를 계기로 '제2의 도약'을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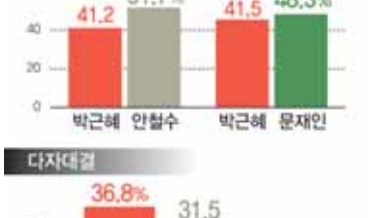
일인 지난달 30일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달 28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탐바우시장을 둘러 추석인사를 건넸다. 문 후보는 총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이동해 훈련병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휴가 끝난 직후 본격적으로 전국 투어를, 정책 행보에 돌입했다. 출마 선언 이후 혁신경제 행보를 통해 안풍(安風) 형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도·무당파층을 겨냥해 세뎌이를 한 데 이어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 속으로 공감을 받문하겠다는 복안이다.

추석 전후 대선 여론조사 결과



9/26~27 리얼미터, 1500명 대상 조사



10월 1일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1000명 대상 조사



다지대결



공동 선대위원장은 서울대 송호근 교수와 함께 인지도가 높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사와 접촉 중이라는 후문이다. 국민통합위원장으로는 유신 시대 대표적 반체제 인사로 오적을 썼던 서인 김지하씨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핵심 인사들이 거론된다. 인선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게 캠프 측의 계획이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달 28일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방문, 추석 물가 점검 및 민심 정취를 하는 등 안방 민심잡기에 주력했다. 박 후보는 이번 추석 인사는 "추석 이후 TV 화면에는 기존과는 확 바뀐 인사들이 나올 것"이라며 대규모 외부인사 영입을 시사했다.

문 후보 측은 이와 함께 선거캠프인 미래캠프 산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관계자들과 오는 15~20일께 개성민사회 등 각계 역량이 모여져야 한다는 정조 마무리를 위해 분야별 정책 비전 및 공약을 맡겨 빌 미래캠프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후보 측 핵심인사는 "미래캠프에서 구체화할 핵심 어젠다들은 민주당 당의 문제가 아니라 당과 화해, 시·민사회 등 각계 역량이 모여져야 하는 정조 마무리를 위해 분야별 정책 비전 및 공약을 맡겨 빌 미래캠프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인 결과, 오차범위 내 박빙 승부를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집전화로 반씩 섞어 임의결기(RDD) 방식으로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박 후보와 안 후보의 양자 대결은 안 후보 47.4%, 박

후보 44.7%의 지지율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안 후보가 앞섰다고 2일 밝혔다. 또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양자 대결은 안 후보 46.4%, 문 후보 46.1%로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 양상을 보였다. 3자 대결시 지지율은 박 후보 39.1%, 안 후보 29.4%, 문 후보 22.5%로 집계됐다. 연휴 전 조사(박 후보 38.5%, 안 후보 31.2%, 문 후보 19.1%)에 비해 박, 문 후보는 지지율이 오르고 안 후보는 내린 것으로 파악

안철수, 호남 민생투어 시작...오늘 여수행

2박3일 일정...목포 대불산단 방문·조선대 특강도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호남 민생투어에 나선다. 안 후보의 첫 호남 민생투어 장소는 처가가 있는 여수. 안 후보는 3일 오후 7시55분 여수공항에 도착, 여수시 돌산읍 송도 가두리 양식장 등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가 한창인 순천시 풍덕동 정원박람회 현장으로 이동,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준비상황을 청취한다.

이후 이날 오후 4시30분엔 목포 대불산단 입주 기업체를 방문해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im@/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이용섭,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 발의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2일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장 1인(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과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국회·대법원장·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지역 교수 186명 박근혜 지지 성명

새누리당 전남도당은 전남지역 10여개 대학 186명의 교수들의 모임인 '전남을 사랑하는 교수회'(대표장영인 순천대 교수)가 지난달 25일 당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일 밝혔다. 전남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6명의 교수들은 복지, 경제, 관광경제, 문화 등 6개 분야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박 후보를) 돕겠다며 실천의지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회는 박 후보를 지지하게 된 주요 근거로 검증된 정치적 리더십, 안정된 리더십, 책임 있는 리더십, 경제 민주화의 리더십을 꼽았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전자여권표지 1천억 외화유출"

국회 외교교통통일위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2일 전자여권에 사용되는 표지(e-Cover)의 핵심 부품이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면서 1000억원 이상이 외국 업체의 손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외교교통상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자여권 발행을 시작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140만권의 e-Cover가 수입됐다. 수입 단가는 개당 4881~7188원이며 총 수입액은 1167억640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국산 제품도 국제인증 받았고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다"면서 "국산과 외국산 간 큰 차이가 없다면 산업적 측면에서 국산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성, 개성공단 근로자 의료지원 방북

광주시의회 서정성(민주·남구 2)의원은 3일 의료봉사법인(사) 선한의료인들(이사장 방중현)과 함께 북한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을 위해 방북한다. 서 의원은 '(사)선한의료인들'과 함께 준비한 시가 2800만원 상당의 종합구급제 5만5000정, 돌보미 50개 등을 가지고 방북 길에 오른다. 이번 방북에는 방중현 이사장(은병원 외과원장), 김성덕 고문(화정교회 담임목사), 조동문 사무총장(위대항외과 원장), 서정성 이사(아이안과 원장), 임승진 이사(임승진 치과 원장), 유영춘 회원(위대항외과 과장), 서용진 간사 등 7명이 동행한다. /박지경·최권일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내국동사저 특검 변호사 2명 추천

민주통합당은 2일 '내국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을 수사할 특검수사 후보군으로 김형태(사진 왼쪽)를 추천했다.

박 44.7% 안 47.4%...박 46.4% 문 46.1%

추석연휴 대선주자 여론조사... 양자대결시 혼전

야권 단일후보적합도선 안·문 후보 격차 좁혀져

됐다. 야권 지지층과 중도·무당파층을 대상으로 한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47.0%, 문 후보가 43.4%의 지지를 받았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6%포인트로, 열흘 전 조사(안 후보 48.1%, 문 후보 37.5%) 때의 10.6%포인트에 비해선 크게 좁혀졌다. 특히 문 후보는 열세 지역이던 호남에서 안 후보를 바짝 추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후보는 열흘 전 53.9%에서 47.3%로 하락했으나 문 후보는 35.8%에서 42.9%로 7.1%포인트 올라, 두 후보 간 격차가 18.1%포인트에서 4.4%포인트로 좁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거래,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영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경매투자 부실채권 특수물건. 경매상담. 1.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2.특수물건 해결방법 제시 3.NPL 매입/투자비용 전수 4.단독/공동투자 가능 5.교육/임장비등 회비 550만원. 소액투자자 대환영! 친절상담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